

유통문제 개선은 생산자 조직을 통해



우 대 일

본회 대구·경북지부장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농림정책 중에서도 특히 양계 부문에 대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농림부 장관에게 몇가지 제안을 드린다. 과학적인 영농으로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원활한 유통 문제이다. 양계 산물중 계란은 특히 신선도 문제와 파손으로 인한 운반의 어려운 특수성 때문에 유통에 문제점이 많다.

유통구조 개선은 양축가가 제값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풀어가야할 문제인데 그러기 위하여 첫째, 군납물품 중 계란 닭고기 등은 철저한 관리하에 양계조합에서 공급하도록 일괄 하여야 한다.

이는 양계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나 생산자 보호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조합 계란 판매사업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 넣어 파급 효과가 매우 크리라 본다.

이기적인 발상의 반대에 부딪쳐 순리를 외면한다면 개혁은 불가능 하다.

둘째, 각종 조합(농·수·축·임협) 판매장에

는 생산자 단체의 생산물만 그것도 개별 아닌 조합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상인들의 납품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공동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셋째, 수출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환차손이 생겨 수출에 경쟁력이 높아져도 수출을 주도할 주체가 없다. 선도조합이나 조합연합체 형식으로 주관업체를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자조금 제도 운영으로 자생력을 길러야 할 줄 안다. 외화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생산량의 조절을 시장기능 이전에 생산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수지의 개선 측면에서도 양계산물의 수출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료 효율이 높고 골치 아픈 질병인 닭티푸스에 강한 백색 산란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통문제와 동시에 종계장, 부화장 계열주체 등을 통한 생산량의 조절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줄 안다. **양계**